

“출산의 기쁨 지역사회와 함께 나눠요”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
‘따뜻한 애기구덕’ 추진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
요가·출산용품 등 지원

서귀포시 표선면(면장 현덕봉)과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현소순)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표선면을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표선면의 따뜻한 애기구덕’(이하 ‘애기구덕’)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지역 저소득층 임산부의 건강한 아이 출산과 성장 지원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핀란드의 출산용품 지원사업인 ‘따따박스’를 모티브로 구상해, 2017년 5월부터 시작됐다.

‘따뜻한 애기구덕’의 의미를 담아 ‘따따박스’로 이름붙인 사업은 다양한 태교 클래스를 통해 임산부와 건강한 출산을 돕고, 출산용품도 지원해 저소득 출산가정의 부담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중위 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임산부의



표선면과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따따박스’ 사업을 진행. 요가와 영양관리 강좌부터 출산용품도 지원하면 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청을 받아 주 2회(총 6회)에 걸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표선센터에서 임산부 요가에서부터 임산부 영양관리법, 모유수유법, 산후 관리와 신생아 관리, 아기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총 2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세트 지원해오고 있다.

애기구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의 신청을 받아 사업 첫 해인 2017년 26명이 수강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29명, 올해는 이달 6일까지

5기에 걸쳐 22명이 수료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연중 받는데, 이달 24일부터는 올해 6기 애기구덕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표선면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희망나눔 표선 2.0 캠페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매달 지역주민들의 기부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대1 매칭 형태로 기금을 조성, 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선면 관계자는 “애기구덕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참가 임산부들의 반응도 좋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기원하고,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문의 760-442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친구들과 함께 가족 그리움 달래요”

숨비로타리클럽 추석 맞이
외국인근로자 한마당큰잔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어요.”

국제로타리 3662지구 성산포 숨비로타리클럽(회장 강말레)은 지난 14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클럽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는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위안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성산포 숨비로타리클럽은 이날 행사에서 옷놀이, 제기차기 등 각종

민속경기와 축구경기 등을 진행하고 한식뷔페를 제공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오랜만에 일터에서 벗어나 힐링·치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고국의 동료들과 어울리며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랬다.

또한 참여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모자, 수건, 보온병, 화장지, 양말, 과자묵음 등이 담긴 선물세트도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외국인근로자는 “친구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되어 행복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성산포 숨비로타리클럽은 2015년 창립된 봉사단체로 지역어르신 식사봉사, 사회복지시설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온정을 베풀고 있다.

이태윤기자



지난 14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마당 큰잔치.

시민 곁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행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휴일 반납하며 봉사 실천

교통문제가 서귀포시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바쁜 업무를 이어오고 있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교통행정과는 최근 입소자들과 자연문화 탐방, 맛집 탐방 등 체험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봉사의 참맛을 실천하고 있다.

또 교통행정부서는 주정차단속 항의, 부족한 주차장 시설 확충 건의,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지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들은 휴일을 반납하며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남원읍 살레시오집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직원들.

특히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남원읍에 소재한 살레시오집의 원생들과 휴애리 탐방, 예코랜드 탐방, 영화보기 등의 봉사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김용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의 업무특성상 시민들로부터 항의의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힐

링캠프를 통한 심신안정도 필요하지만,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고 보람도 얻을 수 있어 쉬는 것 보다 오히려 행복해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한림읍새마을지도자협
버스승차대 환경정비

한림읍(읍장 홍경찬)은 지난 11일 한림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고성영)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승차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한림읍을 찾는 고향 방문객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명리~귀덕1리 간 비가림승차대 20개소에 대해 승차대 물청소, 불법광고물제거, 주변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한림읍은 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합동으로 버스 승차대 환경정비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오름 위 달 보며 무사안녕 기원해요”

다랑쉬오름 달맞이 축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이장 부지성)는 지난 14일 다랑쉬오름에서 관광객 및 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세화리 다랑쉬오름 달맞이 축제’를 개최했다.

>>사진

세화리마을회가 주관한 올해 축제는 식전행사인 체험한마당을 시작으로 달 점등식, 다랑쉬오름 야간산행, 야의 가족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은 지역 발전과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지도상 원형을 띄는 다랑쉬오름의 밑지름은 1013m, 전체 둘레는 3391m이다. 제주 설화에 의하면, 설문대 할망이 치마로 흙을 나르면서 한 줍씩 놓은 것이 제주의 오름인데 다랑



쉬 오름은 흙을 놓자 너무 두드러져서 손으로 쳐 패이게 한 것이 지금의 분화구라고 전해진다.

박순태 구좌읍장은 “이날 다랑쉬오름 달맞이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 무사안녕을 기원했다”며 “오름 등 제주의 생태자원을 보전하면서 현명한 이용으로 주변마을과 상생·발전하고 생태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호남새마을금고 본점 이전안내

호남새마을금고 본점 이전 했습니다.

보다 좋은 금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회관을 건립하여 이전 하였습니다. 완공을 앞둔 시점에 철거 공사로 인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협조바랍니다.

본점
이전기념
특판

정기적금 년4.6%(無조건)

- 가입기간 : 1년
- 가입한도 :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한도(1인 1구좌)
- 판매기간 : 9월 16일 ~ 한도소진시까지
- 본인 내방시만 계좌 개설 가능(대리인 및 미성년자 계좌 개설 불가)



호남새마을금고 이사장 김 용 석

MG 호남새마을금고 | 본 점 755-6400 | 신제주지점 744-6300 | 노남지점 751-6800